

# 게임하듯 집단폭행...친구 죽인 10대들

### 근처 살던 친구 수시로 괴롭히며 원룸에서 2시간 '폭행 게임' 의식 없고 숨 쉬지 않자 도주...범행 후 40시간 만에 4명 자수

재미 삼아 게임하듯 친구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40여 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숨진 친구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예소하고 성격도 온순해 괴롭힘의 타겟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친구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최모(18)군 등 10대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북구 두암동 원룸에서 친구인 김모(18)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전북 순창으로 도주한 뒤, 다음날인 10일 밤 10시 40분께 부모와 함께 자수했다.

가해자 중 1명은 광주 모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무직이었다.

최씨 등은 순창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가보면 친구 시신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북부서 형사와 강력팀이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 김군은 원룸 안에 하얀 입만 채 숨겨져있고, 온몸은 시퍼런 멍 투성이였다. 벽에도 피가 된 흔적이 있었다.

방 안에서는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찌그러진 청소봉 등이 발견됐으며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수사중이다.

최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심심해서 때리는 게임을 했는데, (김군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숨진 김군은 지난해 가해자 중 3명과 H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며 친구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이뤄진 원룸은 최근 등 가해자들이 H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살던 집이다. 숨진 김군은 인근 원룸에서 따로 살고 있었으며, 직업학교 졸업 후 주차관련 일을 하던 중 다쳐 잠시 일을 쉬고 있었다는 게 김군 어머니의 주장이다.

가해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심부름을 시킬 목적으로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던 김군을 수시로 불러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최군 등은 범행 당일에도 김군을 불러 장난감 취급하듯 괴롭히는 게임으로 집단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은 김군에게 자신들 4명 중 1명을 자폭해 놀리게 한 뒤, 김군으로부터 놀림 받은 1명이 김군을 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게임을 이어갔으며 주먹과 발 등으로 김군의 가슴, 배, 얼굴 등을 수십 차례씩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들은 집단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을 쉬지 않자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가해자들이 타고 간 렌터카도 일주일 전부터 숨진 김군 명의로 빌린 것이었다.

경찰은 최근 일당의 정확한 범행동기와 김군으로부터 금품 갈취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승아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또래 집단폭행의 경우 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치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특히 비행력이 진전된 아이들이 몇 명이 될 때 상호작용을 일으켜 죄의식 없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 발생한 청소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현황은 2016년 1658건, 2017년 1814건, 2018년 1623건, 2019년 5월까지 650건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넋 나간 한빛원전 직원들

### 1호기 수동정지 사고 당시 원자로 꺼진 것으로 착각

#### '반응도 계산 잘못' 문건 공개

영광 한빛원전 직원들이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 원자로 수동정지 사고' 당시 원자로의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해 '반응도' 계산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이때문에 한빛 1호 원자로는 열 출력에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상승한 채 12시간 동안 가동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1일 공개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에 따르면 당시 근무자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상태를 임계(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상태가 아닌 것으로 착각했다. 원전이 임계 상태가 아닌 경우는 가동되지 않을 때다.

제어봉을 인출할 때는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

수는 상식 밖이라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문건에는 당시 근무자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했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원자로 열출력을 제한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재발방지대책에서 제어봉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수원 스스로도 한빛 1호기 제어봉 결합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정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이 정리돼 있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지난달 20일)되기 전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봤을 때 한수원 자체적으로 사건의 심각성과 기강 해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로 운영 시스템과 설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대도' 조세형 또 푼돈 훔쳐 구속

'대도'(大盜) 조세형(81)씨가 푼돈을 훔치다 또다시 말미를 잡았다.

서울광진경찰은 "조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가 훔친 금액은 몇만원의 소액이었지만, 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상습적이어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시원하시죠? 11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강타운에서 호남대학교 효사랑 재능봉사단이 강타운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어르신들에게 손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친구 차량서 220만원 가져가 광주북부경찰, 2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초등학교 동창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간 김모(2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빌라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고모(25)씨의 K5차량에서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2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일 술자리에 같이 있던 고씨의 차량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잠이 들었고, 차에 남겨진 김씨는 현금을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나 들고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 대리기사 간 뒤에도 차량 주인 계속 자자 금품 '슬쩍'

광주광산경찰, 10대 입건

2시 2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B(37)씨의 차량에서 현금 80만원 등을 훔친 혐의다.

A군은 절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에도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잠이 든 B씨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100여 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군의 여죄를 파악하고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경찰, 그룹 SS501 김형준 '성폭행 무혐의' 결론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32)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에 따르면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중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가 김형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 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

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맞고소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15년간 걸어진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서라도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A씨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동성애자 승객에 "만져봐"...성추행 신고 협박 돈 뜯은 택시기사들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들이 징역형.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에 따르면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 4명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를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는데, 재판부는 "둘 중 한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명이 나타나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조질이 아주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 임야 단독주택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장흥 관산읍 용전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120만㎡ 당670원 매8억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시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지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델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